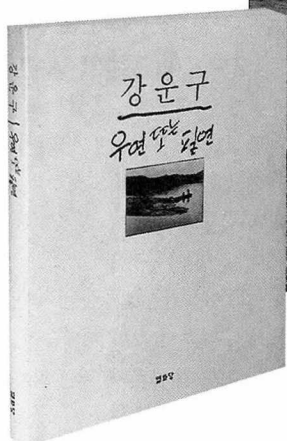


#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강운구 《우연 또는 필연》



· 장수군 수문리(1973)위.  
· 서울(1973).



4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은 참으로 음험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빼앗기고 강탈당했다. 표현의 욕구까지 내준 예술가들은 더욱 그러하다. 자신의 세계와 진실을 지키며 살겠다는 염원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시절까지도 계속되었다. 사진작가 강운구(57)씨의 사진집 《우연 또는 필연》(1994, 열화당)에는 반복되는 변질의 시류에 결코 함몰될 수 없었던 예술가의 투혼이 서려 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기 위해 예술적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노력과 현대사의 허위성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먼저 등장하는 농어촌과 도시의 풍경은 메마른 삶을 어루살고 있다. 심산계곡을 지키고 있는 외딴집,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농우(農牛), 일터로

나간 어머니 대신 어린 동생을 돌보는 소년의 모습에서 빗바랜 추억을 더듬게 한다. 모진 해풍을 견디기 위해 돌담을 쌓아올린 어촌마을, 생필품 꾸러미와 함께 연락선을 타고 가는 사람들, 모닥불을 지펴놓고 바다로 나간 남정네들을 기다리는 아낙네들의 순박한 모습에서 풋풋한 삶의 영혼을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근대화 또는 정치사적 비운의 거센 물결은 민초들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린다. 눈발이 휘날리는 도시의 영상은 메마른 삶의 현장을 증언한다. 물질적 풍요를 이루는 것이 오직 시대적 과업인 것처럼 외치고 있는 근대화의 구호가 삶의 시린 잠영으로 덮여온다. 찢겨진 선거벽보는 암울한 시대적 환란의 정수리를 꿰뚫은 비수로 날

아닌다. 누가 역사를 거스른 자들을 용서했는가! 마침내 <장례식>을 통해 민초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 망령들이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땅속 깊이 묻는다.

아마추어로 활동하던 그는 1966년 조선일보 편집국 기자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사진의 길을 걷는다. 동아일보로 옮겨 활동하던 중에 1975년 '동아언론수호투쟁위원회'에 가담했다가 해직된다. 포토에세이와 다큐멘터리 계통의 사진을 많이 발표했던 그는 사진집으로 《내설악 너와집》(1976, 광장)과 《경주 남산》(1987, 열화당)을 펴냈다. 특히, 경주의 불적(佛蹟)을 한국적 자연미로 승화시킨 《경주 남산》 완결판은 예술적 완성도를 높은 뛰어난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 오완진 기자

## 출판저널

통권 제233호 / 1998년 4월 5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대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IMF시대의 저렴하고 실속있는 출판광고!  
빠르고 알찬 신간종합정보지 — 《출판저널》의  
광고지략으로 출판계 깊은 불황의 주름살을  
조금이나마 펴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광고문의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